



머리글

이상원 사도요한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찬미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창세 1,27)

교회는 위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인간 존엄성’에 대해 말합니다. “인간 하나 하나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녔으므로, 존엄한 인격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단순히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이다.”(가톨릭교회 교리서, 357항)

교정사목을 하면서 때때로 여러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끔찍한 사건들이 매스컴을 통해 여과 없이 보도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왜”로 시작되는 질문을 받으면 사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질 때도 있습니다. 저의 소임이 마치 사회구성원의 일반적 사고를 거스르는 것처럼 해석되어 ‘부당하게 부정’ 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 역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문’이 새로운 ‘의심’을 낳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위 성경 구절을 생각하며, “하느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비치고 있음”(간추린 사회교리, 144항)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글을 묵상합니다.

“사람은 선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디에 있든지 제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저도 예수님과 같은 생각임을 고백합니다. 저 역시 제가 있는 곳에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포장하여 나에게 보내신 선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곱게 포장되어서 바라볼 때 마다 매력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평범하게 포장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느슨하게, 또 어떤 분들은 꼭꼭 싸여 있곤 합니다. 또 배달될 때 잘못 다루어진 것도 있고요. 그러나 포장은 선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쉽게 실수를 해 버리곤 하지요. 어떤 때 그 선물은 포장을 풀기가 쉽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일까요? 상처를 받아서? 아마도 전에 포장을 다 풀었다가 집어던져 버려졌는지도 모르죠! 또는 그 선물이 내게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략)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는 기꺼이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후략)”

끝으로 ‘카르타고의 치프리아노’ 교부의 기도를 바칩니다.

“우리는 넘어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며,

참고 견디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시련에 굴하지 않도록,

넘어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자기 잘못된 중대함을 깨닫고 보속의 삶에 항구하여 다시 죄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죄인에게 배풀어지는 용서가 효력이 있고 참된 화해를 가져다주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의식하고 인내롭게 기다리는 가운데 약한 형제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 모두 돌을 던지거나 돌에 맞기를 원치 않으십니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8월 한 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젠가는 또 찾아주시겠지'

깔끔하게 정비된 신도시에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퓨전 펍을 운영하는 창업자분을 만나보았습니다. 눈길을 확 잡아끄는 세련된 인테리어에 넓지는 않았지만, 천장이 높아 답답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쾌적한 매장에는 편안한 좌석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부부가 함께 호흡을 맞춰가며 어린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에 가벼운 주류를 곁들여 가족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밝은 얼굴로 저희를 맞이해 준 조OO님을 만나보았습니다.

▶ 기쁨과희망은행을 알게 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여기저기 정보를 얻다가 2018년 10월쯤에 기쁨과희망은행을 알게 되어 본부장님과 처음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전화했을 때 하반기 접수가 마감된 지 딱 3일 된 날이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접수하니 그때 다시 접수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셨고, 반년을 기다리자 본부장님이 연락을 주셔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기쁨과희망은행의 창업교육은 어땠나요?

교육 자체는 좋았습니다. 처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1차 합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업을 준비할 때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 자체는 재밌고 희망에 차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이후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교육은 끝나도 지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기다려야 하는 기간도 길고, 그 과정도 불분명하다 보니까 창업 자체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원금이 발판이 되어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 기쁨과희망은행 창업교육을 받고 실제로 창업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업종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로서는 기쁨과희망은행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창업을 하셨던 분들 강의와 심리테스트도 하던 인성교육 강의를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 이런 업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남편과 함께 2년 반 동안 운영하다 저로 인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요식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초기 자본이 없어 가족과 함께 동업했다가 결국 서로 힘들어서 따로 요식업으로 창업을 하



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남녀노소 누구나,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캐주얼 다이닝으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 **창업을 하고 제일 힘들었던 점은?**

새로운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일을 이어서 하는 거라 임대료, 상권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고려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자본금이라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 **창업을 하고 제일 보람되었을 때는?**

고객님들이 맛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단골손님이 생기기도 하고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응원하는 분들이 생겨서 정말 기쁩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 **창업하고 현재 상황은 어떠신가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변화된 점)**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언젠가는 또 찾아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매출에 대한 목표를 높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신규 손님들과 단골손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습니다. 직원이 있으면 직원의 사정을 봐줘야 할 경우도 많은데, 부부라서 아이들 케어나 운영하는데 호흡이 잘 맞아서 좋습니다. 현재는 남편과 함께 일할 수 있어 마음도 편하고 자리도 잡아서 정말 만족합니다.

▶ **향후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는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가족 단위로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많은데 매장이 좁아서 많은 팀을 받을 수가 없어서 방문하시는 분들을 가끔 되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겨서 여유롭게 앉고 방문하시는 분들을 좀 더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 **기쁨과희망은행에 바라는 점은?**

운영하는 취지나 하시는 사업들이 정말 좋은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어렵겠지만 선별된 분들에게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는 순조롭게 진행돼야 목표를 세웠을 때 일정에 맞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교육받고 1차 면접 심사를 받고 최종 2차 심사를 받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 불안한 마음이 오래 가다 보니 지치게 됩니다. 심사로 인해서 계획서만 4번을 제출했던 거 같습니다. 될 수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지만, 매우 급한 상황이라 절실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조금 빨리 나왔더라면 몇 개월 일찍 오픈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사업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지원 폭을 좀 늘리고, 기간이 좀 더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기쁨과희망은행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 다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유다는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창세 29.35 참조).

유다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 그 아이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 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그 아이는 우리 아우고 우리 살붙이가 아니냐?” 그러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하였다. (창세 37,26-27)

요셉이 단순히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기도 하여 다른 형제들이 질투한 것도 있지만, 형제들의 나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기도 하였기에(창세 37,2-4) 형제들 안에서는 요셉에 대한 원망과 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모두 화에 가득 차 있고 음모와 계략까지 꾸미고 있을 때, 유다는 형제들을 잘 설득하여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만형 역시도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고 했지만, 그의 말은 힘이 없어 유다의 말에 모두 수긍하며 따릅니다. 강한 지도력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는 ‘동생의 목숨을 구한 이’가 아니라, ‘동생을 팔아넘긴 이’로 남겨집니다. 아버지의 슬픔을 보면서 그 슬픔을 안겨준 당사자로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제들도 그 책임을 은근히 유다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다 너 때문이야’ 그렇게 큰 사건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유다는 이 사건 이후 형제들과 떨어져 살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이방인과 결혼합니다. 당시에 이방인과 결혼은 가문의 ‘근심거리’(창세 26,35)요, 규율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며느리와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유다가 상대방이 자신의 며느리인 것으로 알고 잠자리를 함께한 것이 아닌데, 오히려 신전 창녀로 알고 했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방인 신의 신전을 찾았고, 매춘을 했다니!

가문을 등지고 하나님까지 등진 유다였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잠자리를 함께한 타마르가 유다의 아이를 배게 되고, 이 아이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의 선조가 되며, 또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됩니다(마태 1,3).

역경을 잘 딛고 현명함과 성실함으로 이집트에서 곡식을 관리하는 높은 지위가 된 요셉이 아니라, ‘근심거리’요, ‘스캔달’인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은 여러 가지 많은 점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런 죄 많은 인간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역시 자신의 부족함에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나아가 한다는 점이 가장 큰 것이겠지요. 유다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악에 가득할지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옳은 길로 최대한 이끌려고 노력했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타마르를 임신시킨 것을 깨닫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애가 나보다 더 옳다!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그 뒤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않았다. (창세 38,26)

유다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곡식을 한번 받아오고 다시 기근이 심하게 찾아왔을 때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끼는 막내아들 벤야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게 아버지의 승낙을 얻도록 설득한 것은 유다였습니다(창세 43,1-14 참조).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잔을 훔친 죄로 벤야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자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섭니다(창세 44,18-34). 이렇게 유다가 종이 되겠다고 나서자 요셉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힙니다(창세 45,1). 고집 센 우리 인간을 설득하고 또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의 ‘종’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느님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유다에게서 보입니다. 야곱은 유다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 유다야, 네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라. 네 손은 원수들의 목을 잡고,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엎드리리라. (...)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왕홀이 유다에게서, 지휘봉이 그의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요셉은 꿈에 형들이 자신에게 큰절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야곱은 축복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이 유다를 찬양하고 엎드리리라 예언을 했으며,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리라고 보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고쳤으며, 남을 위하는 희생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으로 하느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수용자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후원회원 여러분 역시 선의를 포기하지 말고, 또한 우리의 나약함에 좌절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도구로 하느님께서 더 큰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 어떠한 계기로 봉사자가 되었나요?

가까운 지인이 중독성으로 구치소 출입이 반복되는 시기에 주보에서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교육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그 해, 초겨울 교육과 동시에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 천주교 신자로서 수용자를 대할 때 괴리는 없었나요?

첫 활동으로 성동구치소 여사 수용자를 보는 순간은 지금도 이 글을 적으면서 박하사탕 먹는 기분입니다. 그 당시는 얼굴이 찌릿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내 식구다!”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 되듯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비, 바람, 천둥 치듯이 요동을 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을 위한 화살기도로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 기억에 남는 수용자가 있나요?

아직은 봉사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첫 수용자 대녀가 생각납니다. 세례 후 목요일에 만나는 순간 눈빛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소리 없는 입 모양으로 “교도소”라고 했는데,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궁금하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와 교정시설 봉사자로 공존하는데 필요한 방안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얘기를 쓴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처럼 봉사자로서 처음 수용자를 봤을 때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과 같이 변함없고 어긋나지 않는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공존하는데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부님께 >

+ 참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사를
봉헌할 수 없습니 가장 큰 슬픔입니다.

하지만 어느곳에나 함께 하시는 분이신으로
위로 받으며 주일은 나쁜 공소예정으로 대신합니다

그나마 주일에 헌병이라든 신부님의 말씀(덕신)에
위로받습니다.

하루 빨리 모든 것들이 원위로 자리잡아
거룩도 성체와 하나될 수 있길 기도드리며
짧게 다치겠습니다.

‘네 깊은 주님께 달리고 그분을 신뢰하며라
그분께더 뵙소 해주시리라’ 시편 37:5

뵙는 날까지 주님 안에더 항상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헬레나 올린.

서울구치소에 생활하는 헬레나 자매님이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님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19로 중단되었던 미사가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바랍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2020년 9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빛소식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과 함께 기도 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30 *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9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50주년 기념 영상

1970년 4월 2일 '교도소 후원회'를 설립한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2020년 50주년을 맞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5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9차 정기총회 및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7월 6일(월) 명동 가톨릭회관 3층에서 제59차 사단법인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정기총회와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이사장인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를 비롯한 이사, 감사, 정회원, 후원회원들이 참석하여 새로운 신임이사 선임 건과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 심의 안건들을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에서 유경춘 주교는 강론을 통하여 “50주년을 맞은 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다른 어떤 위원회나 조직보다 유서 깊다. 미사 중에 초창기 교도소후원회에 헌신하셨던 분들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며 “오늘 이 미사가 교정사목에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 같은 상황들에도 특히, 담장 안의 많은 분이 그런 한계의 상황들을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주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야겠다.”라며 “기적의 힘이 각자의 삶에서도 체험될 수 있도록 겸손되이 간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간격 두기 등 수칙을 지켜 미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이 건강에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6/13~7/13)

2020년 5월~6월에는 고한숙 카타리나, 김길수 마리아, 김소영 베르텔라, 김영순 마리아, 김옥자 로즈마리, 김해동 아나스타시아, 박상숙 안젤라, 박연희, 박은주 겔마, 박인테 시메온, 박정숙 데레사, 백정열 세레나, 송기정 하나니아, 양기호 요셉, 여윤자, 유민숙 안나, 이은자 마리아, 이주리, 이지현, 이현복, 이호숙 말지나, 이희재 루피나, 임규덕 레베카, 임정례 바울라, 조은경 프란체스카, 최명근, 최용묵(박경자) 요셉(율리아), 한경임 루시아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 알림

- 8월 3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8월 27일(목)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사 / 명동대성당 저녁 7시
(코로나로 인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